

국제교육교류의 성격과 가능성

박창언(부산대학교 교수)*

[요약]

이 글은 국제교육교류의 성격을 밝히고, 그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국제교육교류라는 것은 국가 간 교육에 대한 교류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국가들 간의 상호이해에 기반해 전 세계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현황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경남교육청 국제교육교류센터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들 세 주체에 나타난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현황에서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이론화하여 설명이나 예측을 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국제교육교류의 가능성은 정부나 교육청의 실천력 강화는 교육의 타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개발 원조에 대한 제한성이 있고, 우리나라 학문적 발전에 대한 저조한 노력이 있고, 연구방법론의 활성화를 통한 학문 정체성의 확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국제교육교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On-누리 프로그램, 국제개발협력

I. 서론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어 세계화·정보화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계화나 정보화는 유효한 용어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학문이나 교육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에서 학문적으로나 실제적 측면에서 선진 외국을 추격하는 양상을 지니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주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보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인재양성은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근 환경문제로 자동차에 대한 내연기관 종료 선언과 새로운 발달 등이 그것이다.

* 제1저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changunpark@hanmail.net)

이를 극복하는 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 문제 해결과 그 나라의 특수한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교류를 통한 국가 간 상호이해와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국제교육교류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 현황을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으로 알아보고, 그 가능성을 몇 가지 사항으로 구분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국제교육교류의 성격

교육은 가치를 지향하며, 그 기본성격(본질)은 인간의 성장에 유의미한 장을 마련해 주는데 있다. 국가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각 개인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선택적인 요소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성취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위해 교육적 여건을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은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경우는 교육의 기본성격을 구현하는데 애로를 겪기도 한다. 그래서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한 국가에 교육개발에 대한 협력을 하기도 한다. 교육에서의 경제적 측면이 교육에 대한 교류를 행하는 모습을 결정하는 양상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력과 같은 교육 외적인 측면에서와 달리 교육의 내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교육의 내적인 측면은 주로 직접적 교육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정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경험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한 공유경험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경험은 모든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하는 공통적인 것도 있고, 개인의 소질과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것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통적 요소를 능가하거나 미도달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도 하고 있다.

한 나라와 달리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인간의 존엄이나 평등 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하는 내용도 존재하지만, 한 나라의 특수한 성격도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교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별 특수성을 이해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국가가 소외되어 있는 국가에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새로운 분야의 개척에서 우수한 인력을 충원하는데 있어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외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이들 국가의 국민의 교육적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교육교류는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에 기반해 세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I. 국제교육교류의 현황

여기서는 교육에 한정된 것도 있지만, 국제교류에 초점을 둔 것도 있어 보다 넓은 범위의 국제교류에 대해 초점을 두고 내용적으로 몇 개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교육부의 입장

교육부는 국제교육교류와 관련된 부서는 국제협력관이 있고, 그 안에 국제교육협력담당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의 세 개 부서로 구분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부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토대로 국제교육교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서는 추진배경, 대내·외 여건 분석, 국제개발협력 추진실적 및 평가, '21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계획, '21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향후계획으로 구성하여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은 '21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계획에서 우리 강점(비교우위)분야 지원 확대에서 등장하고 있다.

우리 강점 분야 지원확대는 보건분야, 공공행정분야, 농업분야, 교육분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교육분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22).

1) 교육분야

(1) 코로나 19 이후 우리 원격교육 노하우 전수 요청 급증에 부응,
개도국 대상 맞춤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지원

*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육성 및 한국형 원격교육의 선도역량 강조(국무회의 VIP 모두발언 '20.4.14)

(2) 국내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하여 현재 대학 수요 맞춤형 학과 신설·개편을 지원하고 전문대학 트랙 신설 추진

*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12-)으로 '20년 15개교 → '21년 20교로 지원 확대

(3) 원격교육 체제 구축 추진 방향

▶ 원격교육이 가능한 △ 기본 기자재 패키지 지원, △ 교원양성을 위한 원격교육 분야 선도교원 역량 개발* 및 △ 교원·정책가 대상 컨설팅 제공 등

* 초청연수시 온라인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연수 과정을 특화하여 운영(국내 우수 에듀테크 기업 활용)하고,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강좌 확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교류와 관련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틀에서 제시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부분적인 것으로 최근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개발원조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 수준의 우리의 경제력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이 외국의 원조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국제간에도 일정수준의 경제력이 부족할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할 경우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조와 달리 선진국에 대한 교육적 조치에 대한 것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2. 기관의 현황

국가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교육부 소속 기관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미션으로 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국제교육협력 대표기관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기능이나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6가지를 들고 있다(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21. 5. 30일자 홈페이지).

첫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지원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유학박람회 개최와 유학생 학업 및 생활지원을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운영이다. 여기서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위과정 지원, 외국인 우수교환학생 및 우수자비유학생 지원, 그리고 외국인학생 단기 초청연수 지원이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한국어능력시험(TOPIC) 운영이다. 여기서는 국비유학생 선발·과건,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유학생 파견·관리,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한미 대학생 연수를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국제개발협력 및 국제교육교류이다. 여기서는 교원 해외파견(ODA) 사업, 한·일/한·중 교육교류사업을 구체적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재외동포 교육지원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운영, 재외한국학교 교사 초청연수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섯째, 외국어 교육지원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선발·지원, 영어교육센터(제주) 운영,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수행하는 비전은 국제교육교류를 통한 글로벌인재양성은 국제교육교류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인재의 양성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은 우리나라의 위상과 정체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지원을 통해 공생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국제교육교류를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를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제교육교류와 협력에서 ODA사업으로 교원의 해외파견을 행하고, 한·일이나 한·중 교육교류를 행하는 것은 사업의 내용이 다소 제한적으로 보인다. ODA사업의 일환으로 교원의 해외파견이나 주로 일본이나 중국과의 교류를 하는 것은 사업의 내용이나 국가가 제한되고 있어 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를 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학술적인 교류나 대상 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지역의 현황

국가적 차원과 달리 지역적 차원에서도 교육에 대한 국제교류를 실천적으로 행하며 내실을 거두고 있는 사례도 있다. 경남교육청은 국제교육교류의 효과를 보다 높이고 실질적 교류 사업을 위해 교육분야의 교류를 확장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국제교육교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교육교류센터는 한국국제교류업무지원, 국제교류사업추진, 국제교류현황안내, 국제교류경험공유의 4가지를 센터를 안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경남교육청 국제교육교류센터, 2021.5.30.일자 검색).

국제교육교류센터에서는 경남교육청 국제교육교류사업, 단위학교 국제교육교류지원, 국제교육교류 역량강화로 제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국제교육교류사업에서는 일본, 스웨덴, 호주, 키르기스공화국, 베트남의 5개국 6개 기관으로 교육감이나 교원 및 대학생 등에 대한 교

류를 하고,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한 교육정책교류 및 교육협력을 기대하면서 신규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위학교 국제교육교류지원에서는 단위학교 국제교육교류 지원사업, 국제교육교류 인력풀 사람책 운영, 온라인 국제교류 「On-누리배움프로그램」 운영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On-누리배움프로그램의 경우는 경남교육형 온라인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축적된 원격수업의 역량을 국제교육에 적용한 것으로, 학생들이 국제적 의사소통능력을 길러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넘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자 하는 경남교육청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경남도 민일보, 2021.4.9).

교육청 차원에서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보통교육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일로 생각된다. 코로나 시기에도 위축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도 가치있는 일로 여겨진다. 다만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적인 교류를 통한 개인들의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다소 아쉬운 것이다. 국제교육교류는 실천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재의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이론의 구축과 이를 통한 발전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IV. 국제교육교류의 가능성

국가나 그에 소속된 기관 및 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국제교육교류와 관련된 실천적 측면에서의 활동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실천이 더욱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시도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 따른 국제교육교류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나 그에 준하는 단체의 실시와 교육청의 실무성과 활성화로 실천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타율성과 수단화 가능성도 공존하고 있다고 본다. 국제교육교류의 경우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여 그 활성화를 기할 경우 그 목적인 바가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이에 준하는 자치단체가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것이 우세할 것이다.

교류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대상자들의 의견이나 요구와 같은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 여기서 이러한 대상자의 요구나 힘이 우세하게 될 경우에는 교육교류가 특수이익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는 제한도 따른다. 반면 교류를 실질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집단이 전문가 집단이 될 경우에는 그들의 이론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자 하

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교류에서 국가나 이에 준하는 자치단체가 행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여타의 집단이 참여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대외교류에서 원조를 통한 우호증진과 교류의 확대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의 성장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가 외국의 원조에 의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도외시할 수 없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원조에 의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렇나 조치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가 경제적으로 국경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통한 타국의 개발을 이끌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우호적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다만 상호교류라는 측면에서 다소 일방적 지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국에 대한 지원과 원조는 향후 해당 국가에 대한 발전과 더불어 그 나라 국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존하는 삶에 대한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적인 지원을 통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국제교육원 등 기타 차원에서는 한국의 홍보와 이해에 초점을 두어 한국에 대한 우호증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교류하고자 하는 국가가 세계 전체라고 한다면 개발도상국에 초점이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의 시야를 확장하고, 국가나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교육적 의미를 달성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국가의 경우에는 보다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을 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타국에 대한 지원을 함께 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일로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실천적 입장을 통해 이론화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학문적 체계화와 더불어 국제적 수준에서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문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우리 것 홍보와 다른 나라의 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학문적 차원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의 교육교류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그 대상이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의 성과를 집약하고, 그에 대한 이론화를 위한 작업은 제대로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학문적인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서 학문을 수용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교류와 관련된 사항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것을 그들 나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다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국가 간의 교류가 다양화되고 있다면, 학문에 대한 발전적 수용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문이 특정 국가에 치우쳐 있는 것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우리의 것을 그들 나라에도 수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지원에 비해 학문적 수출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교육을 교류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이론 이외에 그 나라에 특수한 이론도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교류의 학문적 축적을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활성화와 학문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분야의 연구방법의 다원성으로 개별 연구자 입장에서도 제한성이 존재하는 한계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학문은 그것이 탐구하는 대상, 그 대상을 탐구하는 도구로서의 독자적 언어, 그 대상에 관해서 서술하거나 설명하는 명제들을 조직하는 논리적 형식, 그 대상을 탐구하는 방법적 원리와 규칙을 가지고 있다(이돈희, 1998: 94). 여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나라의 이해, 전세계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의 해결 등이 그것이다.

국가 차원의 연구뿐만 아니라, 개별 연구자들의 교류를 통해 타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학문적 발전에 대한 확장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이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인재의 양성에 있을 것이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학문적으로도 세계화와 우리나라의 것을 수출하는 것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국제교육교류는 국가 간의 교육분야의 교류를 통해 국가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국제교육교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행하기도 하고, 실천적으로도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실천적 행위는 국제교류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분야의 학문적 발전이 광복 이후에 성립되고 전개되었다면, 국제교육교류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발전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복 이후의 국제교육교류와 관련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내용으로 발전하였으나, 그 이후 경제의 발달에 따라 현재는 교육과 관련해 개발도상국에 수출을 하

고, 정부개발원조를 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국제교육교류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세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

환경문제와 같이 전세계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이고, 이러한 것은 국제이해와 같은 꾸준한 노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교류를 통해 발굴되는 전세계의 인재는 이러한 문제해결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을 전개하는데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성격과 가능성을 정리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한계는 있겠지만, 이러한 논의가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이론화와 그에 따른 실천력을 더욱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경남도민일보(2021.4.9.)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국제교류, On-누리프로그램.**
<https://blog.daum.net/gnedu/7087326> (2021.5.30.일자 검색).
- 관계부처합동(2020.7.9.).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2021.5.30.) **국립국제교육원의 미션, 비전 및 주요기능.**
<http://www.niied.go.kr/> (2021.5.30.일자 검색)
- 이돈희(1998). **교과학의 성격과 교사의 전문성: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임하여.** 교육연구
논총. 1. 91-100.

게재신청일: 2021. 05. 31.

게재확정일: 2021. 06. 25.

【Abstract】

Nature and Possibilit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ducation

Park Changun(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is article identifies the na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ducation and examines their potential. To achieve this goal,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ducation can be found in supporting economically deprived regions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Next,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education exchanges was examin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nd the Gyeongnam Office of Educ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ducation Center. The statu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ducation shown in these three subjects is active in practice, but there was also a limit to theorizing about them and making explanations or predictions. Based on this,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education exchanges was discussed by the government or education office, which can bring about educational autonomy,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country through support for resource-poor countries, limited development assistance, poor academic development.

Key word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ducation, Education Ministry,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On-Nuri Program,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